

제127호

발행일: 서기 2015년 5월 7일
창간일: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02) 2244-3717
070-8807-3717
FAX: (02) 2243-1073
E-mail: andongkimgu@naver.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김봉회
편집인: 김상근
인쇄인: 김원희
발행처: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우) 130-875
홈페이지: andongkimc.kr

제48회 안동김씨대종회 정기총회

대종회장 인사말씀



친애하는 안동김씨 종친 여러분 그리고 수상 및 포상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일가 어른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능력도 없는 제가 회장의 중임을 맡은 지도 일 년이 되어 4년이란 세월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는 오로지 종친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2년이 동안 대동보 발간 사업에 지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찍 작업이 이달 중으로는 끝날 것이며 1차 교정과 검토 작업이 끝나면 2차 검토까지는 아직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금년 연말까지는 인쇄 출판이 완료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지난 모든 과정은 종친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이룬 업적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경진보가 1580년도에 탄생하여 제8차 대동보를 발간하는 430년에 걸친 긴 문중 역사를 이어 왔으나 전자산업의 발달로 앞으로는 인쇄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문중 역사와 생사 모든 것을 전자방식에만 의

존함으로 시간과 금전적으로는 많은 절약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일출 중에 혹시 누보자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참여하도록 권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친척에게 연락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 올립니다.

또한 금년 대동보 발간에 많은 공헌을 하신 각 파종회 회장님과 편집위원 수권 위원, 심사 위원 여러분과 기타 참가하여 도와주신 종친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종친 여러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중행사인 매년 3월 중 개최하는 대종회 정기총회와 선조님 시제와 각 파종회 및 지역 종친회 모임에 적극적 참여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며 우리 종친회는 정치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화합과 단결만이 승조목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많은 참여를 부탁 올리며 종친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19일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鳳 會 올림

安東金氏大宗會 第48回 定期總會 盛了

2015년 3월 19일(목) 오전 11시 안동김씨대종회 제48회 정기총회가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전날 내리던 봄비도 그쳐 맑게 개고 따뜻한 날씨로 회장의 입구에 진열된 축하 화환이 한층 더 어우러져 접수 등록하시는 참석 종친님들의 반가운 인사가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회장의 전체가 승조돈독의 엄숙함으로 가득하였다.

전국에서 오신 280여 종회원님들로 성원을 이룬 가운데 대종회장님의 개회선언으로 제48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사회 태영(提)님의 진행으로 국민의례를 마치고 내빈 인사 소개는 대종회장님께서 진행하시고 사무총장이 고문 소개 및 각 파별 파종회장 인사 소개와 파종회별로 참석자 인사 소개를 진행하였다.

익원공과 소개에 대종회 이사(理事)이며 파종회 사무국장인 고 만길(滿吉)님의 부음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고문 37명, 추대 부회장 28명, 이사 89명을 위촉하여 추대장과 위촉장은 고문대표 영만(映)씨, 부회장대표 중묵(重默)씨, 이사

대표 영재(映在)님께 전달하였다.

우리 안동김씨의 선조님 충무공 김시정장군 위업을 빛낸 태완(提), 태근(拔)님과 정문상, 한수연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육군 제2358부대장 중령 석대현 님과 규세(圭世)종친님에게는 충무공 공경하선조님 묘소관리와 위선사업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효행상은 정용태(泰福)의 부인(夫人)님에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축하상은 석한, 소정, 치교, 준홍, 수진, 경희 님에게 시상하였다. 이어서 장학생으로 선정된 태운(提), 은지(玆) 지은(玆)학생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다음 대종회장 인사말씀 명예회장 남용(南)님의 축사, 성회(지역 난방공사 사장(廣))종친님의 축사가 있었다.

사무총장의 대종회 업무보고와 감사 용준(龍俊)님의 감사보고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여 2014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및 2015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준비된 음료와 식사를 하면서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제48회 안동김씨대종회 정기총회 화보

安東金氏大宗會 第48回 定期總會

▶日時:2015年 3月 19日 11:00

▶場所:白凡記念館



▲ 회의장 접수대



▲ 회의장 접수대



▲ 회의 시작전 회의장 전경



▲ 회의진행 태영님(提)



▲ 성원보고, 사무총장 상근(提)



▲ 단상의 고문님들과 대종회장 봉회님(都)



▲ 회의장 좌석 정리중



▲ 사무총장의 업무보고

제48회 안동김씨대중회 정기총회 화보

❶ 고문 추대장 및 임원 위촉장을 대표로 받고 있는 장면



▲ 고문 영만님(按)



▲ 부회장 중목님(郡)



▲ 이사 영채님(翼)

❷ 감사패 수상



▲ 태완님(提)불참으로 태육님의 대리수상



▲ 태근님(按)



▲ 정문상 작가님



▲ 육군제2358부대장불참으로 대리수상



▲ 규세님(副)



▲ 효행상 정용태님

❸ 박사학위 취득 축하상



❹ 장학증서전달 및 장학금 수여



▲ 안건토의 정면



▲ 정중하고 화기애애한 회의장



▲ 점심식사

제48회 정기총회 축하 헌성금 내역 (2015. 03. 19)

- 200만원: (都)봉회 대종회장
- 50만원: (翼)석한 (파종회장)
- 30만원: (翼)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
- 20만원: (翼)재용(서울), (文)종회(서울), 서산시태안군종친회, 문영공종회 (提)경목, 도평의공파수도권종회 원종, 안렴사공파수도권종회
- 10만원: (翼)영수(의정부), 재관, 수백, 용대, 재광-제기동(서울), 종회(태안), 상원(인천), 태규(상주), 재훈(양주), 준식(임실), 재남(수원), 재원(부산), (提)태욱(괴산, 파종회장), 정응, 천응(백전종중), 남응(명예회장), 상천(제천), 준회(서울), (按)춘식(수도권종회장), 영만(진천), (典)홍식(파종회장), 춘교(인천종친회장), 치교(용인), (文)영환(파종회장), 광우(서울), (郡)홍수(파종회장), 재신(음성), 재이(강진), (都)희수(서울), 희운(대구), (正)원식(강릉), (大)태식(파종회장), 문온공파종회, 서문관정공파종회, 군사공파종회, 제학공파종회, 안렴사공파종회, 대구종친회, 안동시종친회, 증평종친회, 개성윤공파종회

- 7만원: (典)재열(하남)
- 6만원: (典)용교(서울)
- 5만원: (翼)태영(충주), 재식(서울), 재영(수원), 영채(양양), (典)태국(대구), (郡)승용(안산), (按)사관(여주), (提)재호, 용두(괴산), 동현(제천), 윤철, 봉회(서울)
- 3만원: (郡)석회(인천), (按)태관(괴산), (安)선호(하남), (典)태의(수원)
- 2만원: (翼)재찬, 태정 (강릉)

계 899만 원

■ 축하화환

- 인천종친회 김준교 회장 외 종친일동
- 익원공파종회 회장 김석한
- 판서공 종회 회장 김중묵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성희
- 안렴사공파종회 회장 김태문
- 제학공파수도권종회

【제48회 정기총회 회비】

파	인원	명단
개 성 윤 공 파	3	이경(고양), 창식(서울), 응선(인천)
군 사 공 파	20	홍수, 재욱, 재균, 장회, 재하, 용회, 성묵(서울), 남회, 창묵, 중묵, 재규, 봉회(파주), 홍묵, 경회(평택), 철회, 건회(수원), 재화, 승묵(괴산), 재이(강진), 복묵(청주)
전 서 공 파	22	중수, 재윤, 항교, 용교, 규회, 경회, 대교, 헌덕(서울), 운교(남양주), 철수, 태의(화성), 육교(괴산), 종관(광명), 재열(하남), 중묵, 흥덕(인천), 태진(고양시), 천교, 종택(수원), 홍식(광주), 종태, 종대(안산)
부 사 공 파	4	재은(인천), 원호(광명), 태형(철원), 태기(청주)
문 온 공 파	11	광도, 태연(서울), 상대(인천), 수길(대구), 영윤(광주), 수길(고양), 효만(의정부), 계만, 길상, 의만, 유만(포천)
안 정 공 파	2	선호(하남), 태성(과천)
도 평 의 공 파	9	윤중, 정수, 화수, 우회, 진중(서울), 대회, 당수, (인천), 희운(대구), 시준(광명)
대 호 군 공 파	6	재철, 생기, 태권, (광주), 태중(보성), 찬회, 재수(함평)
제 학 공 파	27	용선, 용항, 윤철, 항용, 준회, 규팔, 태근, 세용, 봉회, 상기(서울), 태경(인천), 규원, 태석, 복용, 태호, 규호, 재석, 기복, 용두, 만응(괴산), 상천, 태현, 동현(제천), 진응(증평), 천응(천안), 정홍, 태호(청주)
안 렬 사 공 파	27	사관, 태길, 승자, 현수, 태철, 천회(서울), 태근, 도회(수원), 건회(김포), 철회(안양), 용회(군포), 재운(오창), 성회(인천), 순영, 범식(부천), 호식, 태윤, 태동(세종시), 태완, 성회, 재성, 선호, 태열(청주), 한수, 경회(괴산), 태진, 진회(고양)
익 원 공 파	36	성회, 홍식, 영식, 재광, 윤묵, 영환, 도갑, 재민(서울), 재근, 우식, 재영, 덕회(수원), 광회, 수환, 용호(용인), 현중, 선호(안산), 재형(양양), 은회(화성), 인회, 재찬, 경회, 태정, 장회(강릉), 용묵, 윤회(청주), 종회(태안), 용준(안동), 재원(부산), 준식, 수복(임실), 태복(시흥), 성회(부여), 용진(전주), 재훈(양주), 남식(파주)
서문관정공파	4	상호, 규은(서울), 재준(성남), 돈영(광주)
정 의 공 파	3	규상(서울), 태섭, 원식(강릉)
계	174명	522만 원

2015년도 안동김씨대중회 장학생 선정

장학금 수혜 대상자

안동김씨대중회 장학사업 규정 제3장 1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수혜 대상으로 결정되어 3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금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번호	姓名(小派)	父名,關係人名	學校 및 學科名	推薦人
1	김태운(提)	남용(당질)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提學公派 宗會長 泰玉
2	김은지(按)	현수(중형제)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按廉使公派 宗會長 泰文
3	김지은(提)	상일(나)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文英公宗會長

安東金氏大宗會 第48回 定期總會

褒賞者

안동김씨대중회 회칙 제29조에 의한 포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대상: 박사학위 취득자 祝賀賞

번호	姓名	父名	學位名	論文	校
1	김석한(金錫漢)翼	희묵(熙默)	교육학박사	체육교육	공주대학교
2	김치교(金致敎)典	현순(憲淳)容行	공학박사	공학연구	경희대학교
3	김소정(金素貞)翼	상원(常元)倉行	이학박사	생화학연구	서울대학교
4	김준홍(金俊洪)提	태조(泰助)	체육학박사	체육교육	서울대학교
5	김수진(金秀眞)閔	양선(養善)容行	철학박사	일반인문학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6	김경희(金敬喜)典	재운(在潤)	공학박사	전기통신	서울대학교

효행상(孝行賞)

성명: 정용태(鄭容泰) 82세 김재복(金在福, 翼)의 妻

주소: 공주시 탄천면 감나무길 81-17

내용: 9대 증부로 30여 년을 사저에서 시제를 봉향하고 숭조정신으로 자녀를 교육하여 성공시켜 모든 이의 귀감으로 문중의 중의로 효행 건의 함

유공 감사패 수상자

성명 및 단체명	공적내용
김태원(金泰完)	충무공김시민장군 동상건립 공로
충무공 김시민장군선양회 의장	
정문상(鄭文翔)	충무공김시민장군 선양 공로
한수연(韓秀蓮)	김시민장군전기 집필
김태근(金泰根)	김시민장군 선양 홍보 공로
충무공선양회 홍보위원장	
육군제2358부대장 석대현	충무공 김홍자장군 묘역관리 공로
김규세(金奎世, 부사공파)	포충사 증건 공로

「충렬공 자료집성」 게이오 대학에 납본하다



충렬공 자료 집성이 일본 명문 사립대학인 와세다(조도전)대학에 이어, 게이오(경응의 속)대학에 납본되었습니다. 감사편지가 와서 공개합니다. 이외에도 국립 도쿄대학, 국립 교토대학에도 납본하였습니다. 통지가 없는 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류슈(구주) 지방의 명문 대학은 물론, 중국의 명문 대학에도 납본할 예정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충렬공 연구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大同譜 編纂刊行 作業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동보 편찬간행 대행사 뿌리정보미디어



▲ 입력작업 중인 사무실



▲ 입력 자료록 견본사진



▲ 수권편찬위원회 수권편찬 작업 사진

수권 게재용 원고 견본



중요 고문서를 찾아 검토하여 새로 게재하기 위한 예를 보드립니다. 대동중약소 문서입니다. 1900년도(경자년)에 항렬차 표기된 문서

일본정벌을 송축하는 노래(東征頌)

「釋國鑑」皇帝御天下。神功超放勳。德寬包有載。澤廣被無圻。 - 中略 - 風塵絕塞須。當觀聖天子。萬歲奏南熏。

「승려 원감국사(圓鑑國師)」皇帝御天下 황제께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와, 神功超放勳 신공이 요보다도 뛰어나시니, - 중략 - 當觀聖天子 우리 성천자 만세토록, 萬歲奏南熏 남훈곡 아름을 보게 되오리

수권 게재용 화보 견본



▲ 개림세묘



▲ 문영공묘소

각 소파별 수단 현황

(2015. 4. 25. 현재)

번호	파 명	수단인수	누보수단 인수	수단인수 합계
1	밀직시사공파	146	20	166
2	개성윤공파	178	23	201
3	군사공파	4,945	587	5,532
4	전사공파	7,700	350	8,050
5	부사공파	1,078	584	1,662
6	문온공파	6,325	280	6,605
7	안장공파	153	108	261
8	도평의공파	4,728	69	4,797
9	대호군공파	1,466	104	1,570
10	판심사공파	37	51	88
11	제학공파	11,580	70	11,650
12	안렴사공파	18,272	833	19,105
13	익원공파	31,155	1,889	33,044
14	서문관정공파	1,020		1,020
15	정약공파	730		730
계		89,513	4,968	94,481

출중한 대동보 편찬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김씨대동보 편찬위원회

안동김씨대중회 회장단회의 개최

2015년 2월 25일(수) 오전 11시 안동김씨 대중회 회장단 회의가 대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재적 29명 부회장님 중 21명이 참석하여 사무총장이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대중회장님의 개회 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진행 순서에 따라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선조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새로 파종회장으로 선임되어 대중회 부회장에 위촉되신 전서공파종회장 홍식님, 도평의공파종회장 영복님, 안렴사공파수도권종회장 춘식 님의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었다.

대중회장님의 인사말씀으로 2014년도 한해 대중회 업무에 헌신봉사의 마음을 담아 협력해주신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2015년도에도 적극 협력을 당부하며 특히 대동보 발간업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 하였다. 사무총장의 2014년도 대중회 업무보고와 회계보고를 하고 대중회장님의 사회로 안건을 상정하여 2014년도 회계 결산안을 토의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도 원안 수정 없이 승인하였다.

회칙개정 7인 소위에서 상정한 회칙개정안은 장시간 토의 결과 이견이 많아 결론을 얻지 못하고 폐회하였다.

1시 30분에 회장단 회의의 종회를 선언하고 대중회관 1층 태능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종회 발전을 위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安東金氏大宗會 任員會議 盛了

2015년 3월 5일(목) 오전 11시 안동김씨 대중회 任員會議가 K.T.X 청량리역사 6층 대회의실(해오름실)에서 90여 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개최 되었다.

식순에 따라 먼저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대중회장님께서 개회를 선언하여 시작된 회의는 국민의례, 참석 임원소개, 대중회장의 인사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사무총장의 업무보고 2014년도 회계 결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임원 만장일치로 승인 결정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하도록 승인하였다.

다음 안건으로 장학사업에 대하여 토의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학생을

추천 원안대로 승인하고 장학금은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정기총회 시 지급하도록하고 박사학위 취득 종원과 효부 표창도 제출된 원안을 승인하여 표창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리고 본 대중회 승조 사업에 크게 기여하여 그 공을 인정하는 추천안을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참석임원 전원에게 고문님, 부회장님, 이사님들의 명찰을 색깔별로 구분하여 만들어 달고 사진에 우송하여 배포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화기에애한 가운데 회의를 마치고 12시 30분부터 롯데프라자 4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돈독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大宗會 會計監査

2015년 2월 6일(금) 오전 10시 安東金氏大宗會 2014년도 歲入 歲出決算에 대한 會計監査가 大宗會 事務室에서 진행되었다.

大宗會 監事 윤준(冀), 재근(郞)님께서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여 監事 資料를 요청하여 監査에 착수 會計의 收支 관계 및 證書書類檢討와 정리내용 등을 꼼꼼히 監査하고 細部 明細 資料 要求 등 질문을 통해 강도 높은 監査를 施行하였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된 監査를 종료하고 監査報告 資料를 작성하여 大宗會長님, 事務總長에게 監査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파종회 정기총회

안동김씨 안림사공파종회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2015년 2월 13일 (금) 오전 11시 오창 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서 대종회장님을 비롯하여 문영공 회장님 등을 모시고 안림사공파와 80여인의 종인분들과 함께 제25차 정기총회를 기행하였다.

제1부에서는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선조 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태문파종회장님의 내빈소개에 이어 대종회장님과 문영공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다.

제2부에서는 홍식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심의안건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여러 종인들의 열띤 토론 속에 만장일치로 처리되었고 기타 토의에서

는 차기 문영공 회장으로 영만 안림사공파 고문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용주 수도관종회 수석부회장님이 안림사공파도 여름 캠프를 열어서 제례의식 등의 교육으로 많은 종인들이 제례의식을 제대로 알고 행하게 하자는 의견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외 영모재 시설물 보수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을 끝으로 회의를 성공리에 마치고 근처 미호 갈비에서 준비된 오찬과 약주로 안림사공파의 단합을 과시하고 다음번 총회를 기약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기사제공 진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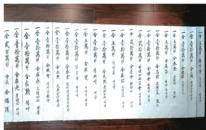
安東金氏翼元公派宗會 第46回 定期總會 盛了

2015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부터 안동김씨 익원공파종회 제46회 정기총회가 200여 종친과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 한강호텔 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깨끗하고 시원한 광나루 한강 풍경이 눈 아래 펼쳐진 한강호텔 회의장에 모인 여러 종친들께서는 반가운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하였다.

在光臨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순으로 총회를 진행하고 며칠 전 타계하신 전 사무국장 만길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려 장례를 숙연하게 하였다. 이어 신임 사무총장 영수님에게 임명장 전달이었고 내빈소개, 錫漢 파종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대종회장, 문영공종회장의 축사가 진행되고

2014년도 회계결산보고, 2015년도 예산안 보고는 회의 자료 유인물로 대신하여 감사님의 감사보고를 마친 후 참석 종원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하였다. 회의 종료 후 위층에 마련된 식당에서 식사와 환담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진행되는 각 소파별 정기총회가 회의장에서 속개되어 바쁜 일정이 계속되었다.



안동김씨 군사공파 제3차 정기총회 뉴스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종로3가 한일장에서 봉회 대종회장과 재파 군사공회장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54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공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태영 총무이사님의 진행으로 선조 님에 대한 묵념에 이어 성원보고 및 경과보고를 차례로 마친 후, 3년 임기를 마친 재파 회장의 이임사에서 "지난 3년간을 돌이켜 보면 파총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하며 그동안 협조를 보내주신 종친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봉회 대종회장께서는 격려사를 통해 "군사공파는 옛날부터 우리 안동김씨의 말파 종중으로서 위상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군사공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이어서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임원선출 건을 상정하여 군사공파 회장에 홍수 광탄문중 회장을 선임하고, 부회장에 재파 양천문중 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에는 장목 장안문중, 총무에 태우 광탄문중 이사를 선임하고 총무 이사에 태영을 재임시켰다. 홍수 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단결 속에서 더욱 발전하는 파총회가 되도록 많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전임 재파 회장께 공로패 전달과 공지사향을 전달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찬조금과 축하화환 금액을 보내주신 봉회 대종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제공-군사공파총회]



2015 崇義殿 春季大祭 參記記

2015년도 崇義殿 春季大祭가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崇義殿에서 奉行되었다. 하늘은 구름이 가득하고 빗방울도 간간히 떨어지는 음씨년스러운 봄 날씨였지만 필자는 이른 아침 인천을 출발하여 오전 9시에 승의전에 도착한 후 제례 주관자(主管事)님들에게 오늘 행사가 대한 설명을 세세(細細)히 들었다. 연천군과 개성왕씨중앙총친회, (사)승의전 보존회가 주관한 승의전춘계대제는 2015. 4. 5(일) 오전 11시부터 행사가 시작되었다. 안동김씨 분원관 (故)윤식 님 내외분께서 9시쯤, 분원관 중에서는 제일 먼저 도착하여 제복(祭服)으로 갈아입고 필자의 안내로 배신청(陪臣廳)을 찾아 총령공 선조님 위패에 제배를 올리고 진설된 제물을 살펴보았다. 10시 반쯤 배신청에 모셔진 16공신 종친회 추천 분원관들에게 급일 제례봉행에 대한 설명과 국궁 4배 및 집흥 폐용 등의 교육을 마치고 11시에 대제 봉행이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오신 참상자와 현관 및 분원관, 재관이 엄숙히 승의전 마당에 자리하여 집례의 참흥에 따라 고려의 의식으로 진행하였다. 제례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초헌관에는 김규선 연천군수, 아헌관 이종

만 연천군 의회 의장, 종헌관 왕계구 승의전 전임장이 헌작하여 고려 태조 3왕의 제례봉행을 끝내고 배신청에 모셔있는 16공신께 분원관의 헌작으로 제례의식은 종료되었다.

급년에는 승의전 보존회 이사회의 시 필자가 제안하여 분원관들의 배신청 제물 음복을 하도록하여 총령공 선조님 위패전에서 음복례를 하니 총령공 선조님의 위업이 더욱 자랑스럽게 생략되며 후손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었다. 우리 안김(安金)에서는 대종회장님을 비롯하여 20여 분 종친님들이 참석하여 승의전 대제의 행사를 빛내고 종친 간 돈독의 시간을 가졌으며 점심은 주체 측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인근 식당에 자리하여 조촐하게 먹었다.

잠두봉 절벽 아래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 맑은 물줄기는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국운이 왕성했던 고려의 4왕께서는 오늘 제물을 흠향하시고 한국의 밝은 앞날을 인도해 주시길!

기사제공 - 大龍 相根-



안동김씨 인천종친회 을미 신년하례회 및 웃놀이행사 성료

2015년 안동김씨 인천종친회 신년하례회 및 웃놀이행사가 2월 28일 (토) 오전 11시부터 인천 남구 주안1동 232-7 음식점 홀돔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총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경향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들과 종친회 회원님들 50여 명이 참석하여 화기에 애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 국민의례, 신조 영령께 대한 묵념, 내빈 소개와 임원소개 후 춘교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대총회장 봉하님, 문영공총회장 영복님, 청주종친회장 신희남의 축하 말씀이 있었다.

이어 명예회장 기성님, 고문 재은님의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업무보고와 금년도 행사일정 등에 대한 설명 후 행운권 추첨 및 상품 전달이 이어졌다.

웃놀이 행사에 대한 설명 및 공고 사항으로 전 회장 상원 님께서 본인의 소유회사 선박 이용할 때 인천거주 종친들의 도서여행 승선요구 할인 및 면제 편의 제공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준비된 떡국으로 점심을 마친 후 웃놀이행사를 시작하여 우승자를 가려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돈독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안동김씨 부산·울산·경남 종친회 제 35회 정기총회 개최

2015년 4월 12일(일) 오전 11시 안동김씨 부산·울산·경남 종친회 제 35회 정기총회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해압뱀에서 개최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오신 80여 명의 종친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회(鄭) 직전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정기총회가 개최 되었고, 최훈(都) 사무국장의 사죄로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및 해수(會) 회장의 인사말씀과 정회 직전회장의 축사 후 해수 회장의 대총회 정기총회 소식과 대동부 발간에 추진경과에 대한 소식 전달이 있었다. 최훈 사무국장의 2014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와 창식(嗣) 감사의 감사보고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으로 2014년도 결산보고서와



2015년도 업무 및 회칙개정 건을 상정하여 회원 대다수의 결의로 원안을 승인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종친회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한 후 정기총회를 종료하였다.

[기사제공-안동김씨 부·울·경 종친회 회장 해수(壽會)]

안렴사공파총회 2015년 하계 예절수련회 개최 안내

- ▶ 목적 : 안렴사공의 불사이군 정신을 함양 삼한갑족의 자손으로서의 긍지와 선조님의 뿌리 예절교육
- ▶ 일시 : 2015년 7월 25일(토) ~ 7월 26일(일) 1박2일
- ▶ 장소 : 증평군 증평읍 남치리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 ▶ 하계수련회 참가 신청방법

가. 남녀노소 중학생 이상 50명
나. 선착순 2015년 6월 30일 마감
다. 회비 1만원
라. 연락처 :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총회
전화 043-218-2158

모바일 010-3482-3158
안렴사공파수도권총회 02-2277-4025
영주부회장 010-8703-6344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총회장 태문
안렴사공파수도권총회장 춘식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재실

보수단 청원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총괄공 26대, 익명공파)

문화재가꾸기 대학교 제 4458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청년인문학 이사
광복 영주부 영주부 250(3F)
TEL. (054)636-1239
H.P. 010-3507-1239
E-mail: dandus@hanmail.net

晩保堂 文敬公 諱壽童 不遷位 寒食 享祀奉行

2015년 4월 6일 안동김씨익원공파 동추공종회(會長 仲元)에서는 대구 동구 신용동 193번지 만보정 문경공묘에서 만보당 문경공 휘수동선조님의 불친위 한식향사를 봉행하였다.

오전 11:00부터 시작된 제례행사에 많은 종친과 종부님들이 참석하여 정성을 다해 성대히 봉행된 제례에 집례 중인, 초헌 봉회(대종회장), 아헌 재방(효소공종회장), 종헌 재훈(전첨공부회장), 이 헌작하였으며 축관은 재종근(유림회총무)이 독축하였다.

선조님께서는 벼슬이 삼도(전라, 경상, 경기)관 찰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에 오르셨으며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을 하시고 불친위로 모셔 매년 한식날과 동추공 향사 후 돌아온 첫 주 일

요일에 제향을 올려 추앙하고 있다.

이날 동추공종회 보고에 의하면 만보정 재실 증수(삼문포함)사업을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증수공사에 격려와 헌성금을 보내주신 많은 종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安東金氏按廉使公派首都圈宗會 第8回 定期總會 盛了

2015년 4월17일(금) 11시30분 부터 제8회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 정기총회가 태문 파종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에 있는 트레인스퀘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날까지 비가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씨도 오늘은 화창하고 따사

로웠다. 진회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식순에 의하여 성원보고, 개최 선언, 국민외례에 이어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엄숙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내빈소개 및 회장님 인사말씀에서 우리 수도권종회가 여러 회원들이 많이 참여 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내빈 축하사로는 태문 파종회장님과 태몽 고문의 축하 말씀이 있었고 대중회 사무총장님의 족보 발간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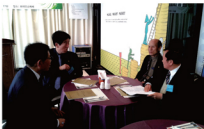
이어서 감사 보고가 있었는데 형남 감사께서 참석 하지 못해 근식 제 무국장이 대신하였고 2014년도 결산 보고 및 2015년 예산안 처리가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 통과 되었다. 기타 토의에서 용주 수도권종회 부회장이 7월 25일~26일 1박2일간의 수련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선조님들의 비문을 해석하여 책자로 만드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오찬과 함께 친목도모와 화기

애한 시간을 가졌다.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수도권종회가 거듭날것을 다짐 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기사제공-진회



신라기원 2072년 승혜전 춘향대제 봉행

‘유~신라 기원 2072년 세차~ 음미 2월 음미식 초 2일 병신 한국공항공공사장 김석기는 신라 미추왕께 감히 고하옵나이다. 었드려 생각 가진 대 가문으로는 업적을 수성하였고, 나라로는 선양을 받아 문물을 개발하였으니, 높은 훈업과 거룩한 공덕은 하우씨와 성탕을 초매 하였습니다. 때는 중춘이온데 삼가 회생과 폐백예제와 서직 여러가지 제품으로서 밝게 제향을 올리오니 흥한하시옵소서’

대축관의 우렁찬 음성이 2015년 3월 21일 (토) 오전 10시 30분 승혜전에 울려 퍼졌다. 국내에서 온 집한 참사 객들이 장엄하고 엄숙한 춘향대제에 참여하였다. 세 분 왕의 축문이 모두 신라기원 2072년으로 시작 되는 것으로 보아 천년 고도 경주임을 새삼 깨달았고, 천년의 왕업과 휴식 천년이 지난 뒤에도 신라 왕손들의 자긍심이 보였다.

이날 9시 30분에는 승덕전 (박혁거세 모심), 10시에는 승선전(석탈해 모심), 10시 30분에는 승혜전(미추왕, 문무왕, 경순왕 모심) 이렇게 왕의 집권 순서에 따라 시차를 두고 경주 전역이 향사를 치르고 있었다. 승혜전은 신라 최초 김씨 임금 미추이사금, 신라 30대 삼국통일 완성 문무왕, 신라 마지막 왕 경순대왕의 위패와 어진이 모셔져 있으며 경주시에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선 안동김씨 대총회에서는 (사)승혜전동묘존화에 이사를 한명 파견하고 춘계향사와 추계제에 참사를 하고 있다.

필자가 이 영광스럽고 막중한 소임을 맡아 참석하여 환대를 받으니

왕의 후손으로서 긍지를 느끼며 감개가 무량하였다.

이날 행사는 초헌관 김석기 님을 비롯하여 아헌관 김경수(日本京都 현대건설 대표), 종헌관 김동진(계림 세모 참봉), 대축관 손상규, 집례관 김소주, 전사관(典賓) 김병호 님 외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었다.

관전실이 세 분이었는데 세 분의 왕위에 각각 한 분이고 특이한 점은 돼지, 염소, 토끼 각각 한 마리를 정성껏 장만하여 익히지 않고 제수로 올린다는 점이다. 또한 7년째 차은정 교수(이사금 밭상 출연)팀이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 신라인의 복장으로 제수 진설에 봉사하고 있음이 놀라웠다. 승혜전 정문과 신문에는 신라 장군복을 입은 수문장이 양쪽에 떡 버티고 있어 든든했다.

한편 정정은 20일 금요일 오후 4시 승혜전 신문 앞마당에서 하였고 승혜전등이사회는 오후 7시 신라화관에서 있었으며 승혜전 동편에 22억 예산의 예빈관 건립에 관한 것을 김진욱 총무가 설명하였다.

-기사제공 정충(都)-



안동김씨 제학공과 수도권총회 제6회 정기총회 개최 소식

안동김씨 제학공과 수도권총회 제 6회 정기총회가 2015년 3월 21일 (토) 오전 11시 종로3가 피카디리극장 6층 청수장에서 열렸다. 토요일에 행사가 진행될 관계로 결혼식 등 여러 일정과 겹쳐 20여 분의 종친들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사무처장 융환 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회장 인사말, 태극 제학공과총회 회장 축하 등이 이어졌다. 다음 2014년도 회계결산과 2015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재무부장을

을 근석 님으로 임명하고 2015년도 사업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이날 감창공 휘맹렬 선조님의 동생이신 참판공 휘종렬 할아버지의 종손 상원님이 참판공총회에서 처음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총회가 끝난 뒤 준비된 식사를 하며 안부를 묻는 즐거운 자리로 총회는 마무리되었다.

-기사제공 건호-



始祖(諱 閼智)할아버님 呼稱(官職名)에 대한 考察

金榮煥(문온공파종회장, 안동김씨역사연구회장)

우리 김문의 시조(始祖)이신 휘 알지(閼智)할아버님에 대하여 안동김씨 문중에서는 계속하여 태보공(太輔公)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는 잘못된 칭호라는 지적도 있었고, 경주 계림 위패에도 太輔公이라고 적혀 있으며, 경주김씨를 비롯한 타 김씨(신라김씨)는 大輔公이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문중 으로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太輔公이라는 호칭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써야 하며, 또 이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틀린 호칭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고쳐 부르는 것이 후손 된 도리로 서 당연할 것이라 생각되어 부족하지만 이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안동김씨 문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보공(太輔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중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랜 기록인 庚辰譜는 선조 13년 서기 1580년에 간행된 현존하는 최초의 안동김씨 족보입니다. 여기에 서문을 읽어 보았으나 시조(휘 알지) 할아버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 낸 기록 중에 가장 오래 된 기록이 기미보(1739년)에서 안동김씨계원류 시조(김알지)께서 太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후 윤휴보(1825년)에 김우원 선조께서 쓰신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王寅譜(서기 1902년 단기 4235년), 乙亥譜(서기 1935년, 단기 4268년), 己未大譜(서기 1969년 발행) 首卷에도 太輔公으로 계속 기록했습니다. 기미보, 윤휴보에서 선조님께서 어떤 근거로 太輔公이라고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후 모든 족보에서 이를 답습하여 계속하여 太輔公이라고 호칭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 발행된 기미대보나 각 파의 파보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볼 수 있습니다. 太輔公이라는 관직명이나, 호칭을 각종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았으나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백과사전에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사정보시스템, 한국본문집간, 국가지식정보포털 등 모든 자료에 검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서인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국통감, 동사강목에서도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보(太輔)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보(太輔): 고구려·신라 초기의 관직.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의 기능을 수행했다. 중국에는 없었고 고구려·신라에만 있었던 관직으로 삼국시대 초기에 존재했던 고구의 관직을 후세에 한식(漢式)으로 표기한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유리왕 때 협보(陜父)가 대보의 지위에 있었는데, 후에 대보는 좌보(左輔)·우보(右輔)로 나뉘었다가 다시 국상(國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신라에서는 남해 차차웅 때의 탈해(脫解)와 탈해 이사금 때의 호공(狐公)이 대보의 지위에 있었는데, 탈해 이사금 이후로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이별찬·이찬 등이 대보의 임무를 계승했는데, 이는 점차 종장증의 관료화와 관직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행정·군사권이 분리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아후백과사전]

역사서(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국통감, 동사강목)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 삼국사기 신라본기

남해 차차웅: 7년(서기 10년) 가을 7월에 탈해를 대보(太輔)로 삼아 군무(軍務)와 국정(國政)을 맡겼다. [七年 秋七月 以脫解爲太輔 委以軍國

政事……] (주*1)

* 남해 차차웅(南解次次雄)?~24년. 신라 제2대왕 재위 4년~24년.

성은 박씨. 혁거세의 딸아들이며, 어머니는 알영부인(閼英夫人)이고, 비는 온제부인(雲帝夫人) 또는 아루부인(阿婁夫人)이다……중략……서기 6년에 시조보(始祖廟)를 세우고 8년 탈해가 어질다 하여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으며, 또 대보(太輔)의 벼슬을 주어 나라의 일을 맡겼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羅上古世系의 再構成試圖(金洙洙, 東洋學 3, 1973)]

2) 삼국사기 신라본기

〈남해 이사금〉

탈해 이사금(脫解尼師今)〈탈해왕 또는 토해(吐解)라고도 하였다.〉이 왕위에 올랐다.……중략……남해왕 5년에 이르러 [왕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고, 7년에는 등용하여 대보(太輔)로 삼아 정치의 일을 맡겼다. (주*2)

脫解尼師今 立 一云吐解 時年六十二 姓昔 妃阿孝夫人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중략……至南解王五年 聞其賢 以其女妻之 至七年 登薦爲大輔委以政事

* 탈해 이사금(脫解尼師今)?~80년. 신라 제4대왕 재위 57년~80년. 성은 석씨(昔氏). 토해(吐解)라고도 한다.……중략……서기 58년 호공을 대보로 삼고, 서기 64년 백제군이 와산(蛙山), 구양(狗壤)의 두 성을 비릇하여 이후 4, 5회 공격해 왔다. (주*3)

서기 65년(삼국유사에는 60년) 시립(始林)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확 인식켜 보니, 금궤(金櫃)가 나무에 걸려 있고 그 아래 흰 닭이 있어, 궤를 열어 보자 용모가 단정한 아이를 얻었는데, 이가 김알지(金閼智)이다……후략. (주*3)

참고문헌: 三國史記: 韓國古代社會研究(金哲堧, 知識產業社, 1975)

韓國家族史의 研究(李光奎, 一志社, 1977),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李鍾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三韓의 國家形成 上(千寬宇, 韓國學報 2, 1970)

3) 삼국사기 신라본기

〈유리이사금〉 유리 이사금(儒理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중략……앞서 남해가 죽자 유리가 마땅히 왕위에 올라야 했는데, 대보(太輔)인 탈해가 본래 덕망이 있었던 까닭에 왕위를 미루어 사양하였다. 탈해가 말하였다……후략(주*4)

儒理尼師今立……중략……初南解薨 儒理當立 以大輔脫解 素有德望 推讓其位 脫解曰

4) 삼국사기 신라본기

〈미추 이사금〉 미추 이사금(昧鄒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중략……그의 선조 알지(閼智)는 계림에서 났는데 탈해왕이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워 후에 대보(太輔)로 삼았다. 알지는 세한(勢漢)을 낳고 세한은 아도(阿道)를 낳았으며, 아도는 수루(首魯)를 낳고 수루는 옥보(玉甫)를 낳았다. 그리고 옥보는 구도(丘道)를 낳았는데 구도는 곧 미추왕의 아버지이다. 첨해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미추를 왕으로 세웠다. 이것이 김씨가 나라를 갖게 된 시조이다. (주*5) 昧鄒尼師今立……중략……其先閼智出於鷄林 脫解王得之 養於宮中 後拜爲大輔 閼智生勢漢 勢漢生阿道 阿道生首魯 首魯生郁南 郁南生仇道 仇道則昧鄒之考也 沽解無子 國人立昧鄒 此金氏有國之始也

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1 유리명왕

〈유리명왕〉 22년(서기 3년) 겨울 10월에 왕은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 암성을 쌓았다. 12월에 왕이 질산(質山) 북쪽에서 사냥하면서 5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대보(大輔) 협보가 간하였다……하락(주*6). 二十二年 冬十月 王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11) 十二月 王田于質山陰 五日不返 大輔陝父諫曰……하락.

6) 고려사

고려사 卷九十五 列傳 卷第八 諸臣 최충(崔冲) 전략……문종 22년(1068년)에 즉자 왕이 태의감(太醫監) 이엄(李堧)을 통해 조서를 내려서 아들 최유선(崔惟善) 등에게 조문했다……중략……나라를 항상 시킬 흥룡문 문장으로 일찍 재상(宰相)의 자리에 올랐고, (주*7)

二十二年 王遣太醫監李堧, 下詔弔其子惟善等曰, “卿父, 人中威鳳, 朝右龍章, 抱喪齊至魯之文章, 夙登大輔, ……하락.

고려사 卷九十五 列傳 卷第八 諸臣: 김한중(金漢忠)은 신라의 대보(大輔) 김알지(金閔智)의 후예로, ……하락(주*8) 金漢忠, 新羅大輔閔智之後……하락.

7) 조선왕조실록

세종 15 지리지 / 경상도 / 경주부 / 경주부……전략……김부식이 (삼국사기에)이르기를 “탈해왕 9년에, 밤에 금성 서쪽 시립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있음을 듣고 날이 밝자 대보(大輔) 호공(弧公)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니 금빛의 작은 꿩이 나무에 매달리어 있고 흰 닭이 그 밑에서 울고 있었다……중략……거두어 길러서 이름을 김알지(金閔智)라 하였는데……금궐에서 나온 까닭으로 성을 김이라 하였다……이하 생략(주*9) 廣州: -중략- 金富軾曰: “脫解王九年, 夜聞金城西始林樹間, 有鷄鳴聲, 暹明遣大輔監公視之, 有金色小雛掛樹枝, 白鷄鳴於其下, 王使人取樹間之, 有小兒在其中, 姿容奇偉, 王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遣我以令胤乎!’乃收養, 名之曰閔智, 及長, 聰明多智略, 以其出於金櫃, 故姓金氏. 閔智七世孫味鄒娶新羅助賁王之女.”

8) 東國通鑑

신라 첨해왕 15년, 고구려 증천왕 14년, 백제 고이왕 28년, 신라년(辛巳年), 261년

겨울 12월 ○신라왕 친해(沾解)가 흥(興)하고, 조분왕(助賁王)의 사위 김미추(金味鄒)가 즉위하였다. 처음에 석탈해(昔脫解)가 김알지(金閔智)를 계림(雞林)에서 얻어 궁중(宮中)에서 길러 뒤에 제배(除拜)하여 대보(大輔)로 삼았다. 알지가 세한(勢漢)을 낳고, 세한이 아도(阿道)를 낳고, 아도가 수루(首魯)를 낳고, 수루가 옥보(郁甫)를 낳고, 옥보가 구도(仇道)를 낳고, 구도가 미추(味鄒)를 낳았다. 조분왕이 그의 딸로써 처(妻)를 삼아 왕으로는데, 이에 이르러 흥하고 후사(後嗣)가 없자, 나라 사람이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주*10)

9) 東史綱目

신라신라 신라 첨해왕 15년, 고구려 증천왕 14년, 백제 고이왕 28년(위원제 경원 2년, 261년)

* 겨울 12월 계림의 이사금 첨해가 갑자기 흥(興)하고, 조분의 사위 김미추(金味鄒)가 즉위했다. 왕은 폭질(暴疾)로 흥하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조분왕의 사위 김미추를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이가 미추 이사금(味鄒王) 미조(味鄒)라 한다.이다. 어머니는 박씨이니 갈문왕 이질(伊質)의 딸이요, 비는 석씨 광명 부인(光明夫人)이다. 처음에 탈해왕이 김알지(金閔智)를 얻어 궁중에서 길러 후에 대보(大輔)로 제배(除拜)하였는데, 세한(勢漢)을 낳고 세한이 아도(阿道)를 낳고, 아도가 수루(首魯)를 낳고 수루가 옥보(郁甫)를 낳고, 옥보가 구도(仇道)를 낳고 구도가 낳은 미추가 왕이 되니, 이가 김씨로서 나라를 차치한 시조

가 되었다.(주*11)

결론: 大輔라는 관직이 처음 보이는 것은 신라 남해 차차웅 7년(서기 10년)의 기록입니다. 탈해 이전에도 大輔라는 명칭이 있었으리라 추측되지만 기록상 처음 보입니다.(주*1)

탈해는 大輔를 거쳐서 서기 57년에 신라 제4대왕에 오릅니다.(주*2) 석탈해가 왕으로 재임하는 중에 서기 58년 大輔 벼슬에 호공(弧公)이 오르게 되고(주*3)

서기 65년에 우리 김문의 시조(휘 알지) 할아버님이 탄생하십니다.(주*4)

이후 석탈해 왕은 김알지를 키워 大輔의 지위에 임명하게 됩니다.(주*5)

- 여기에는 탈해가 죽은 서기 80년은 시조 할아버님(김알지)은 16살이 라고 계산되지만 이는 논외로 하였습니다.(삼국유사에 의하면 26세) 이런 기록 이외에 大輔라는 직위는 고구려에서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주*6)

고려사에서는 최충은 大輔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고(주*7) 김한중은 大輔 김알지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주*8)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종조에 지리지 경주 기사란에 大輔 호공(弧公)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주*9)

기미대보(1969년) 93쪽 -太輔公사실에 동국통감을 인용하여 太輔公이라고 했다고 했으나 동국통감에도 大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탈조가 잘못될 수도 있어 원본도 확인하여 보았으나 역시 大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사강목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여 살펴보았으나 역시 동국통감과 같이 大輔라고 되어 있습니다.(주*10, 11)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역사서나 문헌에서는 太輔公이라는 단어조차 나타나지 않고 역사서에 분명히 우리 시조이신 김알지 할아버님이 大輔에 오르셨다는 것으로 보아 시조 할아버님의 호칭은 太輔公이 아니라 大輔公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족보에는 왜 계속하여 太輔公이라고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지만, 한학과 보화에 밝으신 선조남계서 大輔公을 太輔公이라고 고쳐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에는 다라는 글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는 발음상 “대, 태, 다”라고 한자 자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학에 밝으신 선조남계서 大輔公은 태보공이라고 발음하여야 마땅하나 대보공이라고 모두 발음하니 다와 뜻이 같은 태를 써서 글자와 발음을 맞추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는 조선시대 벼슬이름인 洗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洗馬의 발음은 선마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지은 [언변비각]에 “洗馬의 발음은 선마(洗馬)라고 해야 하는데 세(洗)라고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高麗, 高句麗의 麗字도 ‘리’로 발음하여 고리, 고구리로 발음했다고 하며, 姜邯鄲도 강한찬이라 발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서에 분명히 大輔公이라고 되어 있고, 경주 계림에 위패에도 大輔公이라고 적혀 있으니 우리 안동김문에서도 大輔公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문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발음을 대보공이라고 해야 할지 태보공이라고 해야 맞는지는 논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洗馬의 발음이 세마로 굳어지고, 高句麗의 발음이 고구려, 姜邯鄲도 강감찬으로 발음이 굳어져서 이제 세마를 선마, 고구려를 고구리, 강감찬을 강한찬으로 발음하는 것도 많은 혼란이 올 것이므로 大輔公에 대한 발음도 대세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후학들의 연구자료에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존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신라김씨연합대중원 (사)신라문화보존회

2015년도 정기총회 성료

신라김씨연합 대중원 (사)신라문화보존회 정기총회가 성공관 유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신라김씨 각관 종친 대표 이사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김수길 총재님의 인사말씀으로 그간 대중원의 어려운 일들이 정리되었고 이제 대중원 발전에 힘쓰자고 인사하였으며 전임총재님 축사의 말씀은 제림세묘 제향시에 배워 제향을 함께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어어서 전년도 회계 결산안을 상정하고 미 감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

으며 원안 승인을 요청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또한 2015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공지사항으로 5. 9.(토)경순대왕 순향제 봉향에 관한 설명과 많은 참석을 부탁하였다.

또한 제림세묘 제향을 금년부터 대중원에서 주관 봉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고지하였다.

신임 임원 선임이 있은 후 회의를 폐회하고 갈비탕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행사를 모두 마쳤다.

—大龍 金 相根—



春雨(춘우) [2]

에타게 기다려온 봄비
오를 찾아와
수수꽃다리 꽃술에 가득 머금고
왕 빛꽃 일 빗물에 씻겨내려
둥 둥 둥 떠내려 가네

우산 받쳐든 산책길에
뿌리는 봄비
을씨넌 하지만
초목(草木)들의 생기를 돌워주니
내맘 또한 반갑구나

이 봄비 개이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돌아나
초록의 산록(山麓)이
한층 더
풍성 해 지겠지!

우리네 마음도 빗물에 씻어
오랜된 이 세상
정화 해야지....

배봉산공원 산책길에서
봄비 맞으며
—大龍 相根—



경 안동김씨 대구종친회관 개관식 축

●일 시 : 2015. 5. 2(토) 오후 3시 ●장 소 : 종친회관 2층



祝賀 석한(錫漢)님(익원공파종회장)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

박사학위논문 : 축구행정조직의 공정성이 조직기반 자긍심, 직무만족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업경영 및 사회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학구열을 발휘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본인의 명예는 물론 우리 안동김씨 총렬
공 후예로서 명예를 드높인 석한님께 축하
드립니다.

訃 音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안동김씨 대중회 이사 익원공파종회 사무국장 만길(滿吉)님께서 2015. 3. 17. 오후 숙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 ◎ 안동김씨 대중회 고문 개성윤공파종회 고문 상명(相明-植行)님께서 2015. 3. 31. 오전4시 숙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 ◎ 안동김씨 대중회 수권편찬위원 익원공파 좌희 부친(在昌)께서 2015. 4. 24. 오후 숙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 ◎ 안동김씨 제20대 대중회장이며 대중회 고문이신 홍식(弘植)님께서 2015. 4. 26 오후 숙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연재 栢田忠烈祠 創建實蹟 [백전 충렬사 창건실적]③

上樑文 「상량문」

伏以 忠臣求於孝門 典冊¹⁶可按 先生沒而祭社 棟宇載新
일드려 삼각건대, 효성스러운 집안에서 충신을 구하는 것은 전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신상이 돌아가시니 제사를 드리고자 마땅대와 주너 끝을 새로 올립니다.

肅踏乎 衿紳依歸附譽兮 俎豆崇奉 旌旌象山 小縣降我龜龜大賢
검을걸이 엄숙하구나. 신비와 권리를 제사를 드리러 모이되네. 제기를 받들어 이 상산을 돌아보니 작은 고을에 우리 구암선생 강은 대원을 내렸습니다.

詩禮趨庭單傳 贈相公旨訣 昆季入室
시와 예는 어미이로부터 마을으로 배우는 것이니, 贈喪상공의 학문의 정수는 일찍이 그분의 말아드님과 대내아드님이 깨쳤습니다.

蚤遊退陶¹⁷ 詔門墻 與奇高峯李默齋而齊名
일찍이 퇴계선생 문하에 유학하여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목재(默齋) 아문진(李文進)과 이름을 나란히 하고

金蘭臭味爲鄭湖陰曹芝山之畏友
금란의 향기로 호음(湖陰) 정사옹(鄭士翁), 지산(芝山) 조오익(曹好益)의 아끼고 존경하는 벗이 되었습니다.

麟文詞兩試則首善占魁一出也
문장이 뛰어나고 아름다워 생원, 진사 두 시험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하여 가장 빼어났습니다.

羽儀瑞世 妖僞被輓 傳誦芹芹¹⁸之章 學士敏尸 掩泣松歌之闕
대궐상세에는 모범이 되었으니, 요술이 두려워 흉이 빠지도록 문묘에 남을 문장을 지어 전하였고, 학사의 시상을 거두면서 〈송송가〉를 지어 열경하며 얼굴을 가리고 앉았습니다.

甘陵¹⁹激慨 矢心善類之同歸 元祐謫齋 側目奸黨之同散
당파싸움에는 분개하여 마음속으로 좋은 선비들과 함께 돌아갈 것을 맹세하였고, 군자가 득세하였을 때는 간사한 무리가 군자가 말하기만 기다리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果然壁書之誣變久矣
그 결과 벽서에 연무되었다는 무고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澤累之行吟 甘載星霜供甘旨而靡懈 六經誦讀處窮約而愈勳
누추한 곳에서 귀양살이하며 글을 읊으니 귀양 사는 세월을 달게 받아들이고 성지를 거기에 받들어 해이해지지 않았으며, 육경을 읽고 외며 생활한 곤궁하나 더욱 근면하였습니다.

及至昭敬王²⁰初元 權以正直臣 不補丹衷而 硬直刺口冠筵 伏誦²¹墨綬而 貪婪斂跡
선조 원년²²에 이르러 정직한 신하로 발탁되어 임금을 모시지는 못하나 강직하게 고관을 비판하고 수령을 탄핵하니 재물을 탐하는 자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繡衣持竿²³ 汲子²⁴之體事主五載風毛 毛生之屈爲親 一離海岳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되어 임금 같은 우척함으로 임금을 모시는 다섯 해 동안 위풍이 당당하였으나 아버지를 위해 붓을 굽혀 지방의 수령으로 나아갔습니다.

曉哉 扶輿於聖室²⁶ 駟馬持杖而擊賊 洗鍊²⁷潔潔忽忽反哺之義 腹營²⁸血淚茫茫下從之.
아아, 악설에서 관을 불스니 의지할 바 없어 지방에 겨우 기대어 울부짖었고, 음식을 절갈쳐 올리고 계개하고 술을 올리며 슬퍼하면서 반포지회를 다하였으며, 묘소를 조성함에 피눈물을 망망히 흘루리며 뒤따랐습니다.

誠肆敢不勝喪之嘆 乃在機關制之日.
효성이 지나쳐 결국 상을 당한 비탄을 이기지 못하였으니, 바로 겨우 상을 벗게 된 날이었습니다.

行惟殉孝 郡堪士友之推.
오직 효를 위해 따라가고 말았으니 군 내의 벗들과 선비들의 우러름을 받았습니다.

傷學未展 忠意違君民之致澤
배움은 끝지 다 펼치지 못했고, 충성된 뜻은 임금과 백성을 위해 지세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令弟子辨節烈而 無懼閹閹三綱惡教掖之.
동생과 둘째 아들의 절의가 열렬하여 집안에서 삼강으로 가르친 것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有素停花巖巖食之議 章甫共咨謫 栢谷講學之墟箕裘靡墜 酒者廟貌之 塋소에 좌암사원에 배향하려는 논의가 지체되지, 선비들이 함께 우리르며 논의하였

고 백곡공이 학문을 강론하던 옛 터가 폐허가 되었으므로 이곳에 사당을 짓고 그를 추모하려 하였습니다.

經始合然道論之詢 同儒林之尊慕齊聲 卜地云吉
집을 짓기 시작하여 도를 논하는 의문을 한데로 모으고 유림의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목소리를 함께 모아 지형을 점쳐보니 길하다고 나왔습니다.

工倅²⁹之營度效力不日其成 心香致虔期 無替於禮簫 額瞻³⁰瞻瞻 將有待於思宣
공수와 같은 목수의 솜씨로 힘을 써 하루도 못 되어 완성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제사 드리는 예에 어긋남이 없으며 예효에 맞을 더하고 장차 은연을 내리시길 바라옵니다.

爰撰六偉之謠³⁰ 肅助上樑之唱
이에 육위의 노래를 지어 상량의 노래를 힘껏 읊는다.

拋樑東
대들보 동쪽에 박치노라

鵲城山 壽峯維崧 鍾吾夫工兼美³¹ (缺字)
작성산은 푸르고 빼어나 홀로 우뚝하고, 우리들은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겸하게 되었습니다.³¹

九仞終成積累功
아홉 인³²을 쌓는 일을 마침내 이루어 공든 탑이 완성되네.

拋樑西
대들보 서쪽에 박치노라

巖巖斜日繞清溪 風微十室興忠孝
취암에 해가 걸려 푸른 계곡에 빛나고, 바람이 살살 부니 열 집안에 충효가 일어나네.

絃誦洋洋道不迷
거문고 따며 시 읊는 소리 드노고 도를 잃지 않으리라.

拋樑南
대들보 남쪽에 박치노라

文星³³天末碧潭潭 諸生講習避私竊³⁴
문성이 하늘 끝에서 푸른 물처럼 푸르고, 여러 유생 배우고 익히며 선현들을 본받아 따르네.

想像岵山侍丈³⁵
도산을 떠올리며 스승을 삼기리라.

拋樑北
대들보 북쪽에 박치노라.

五里官居稱大麓 不肖神龜谷口藏
5리의 관사를 대궐이라 이름하고 불초한 신령은 구곡의 입구에 숨었으니

行休當日³⁶於斯卜
일을 하고 마는 것은 응당 이 점을 칠 때 말하소서.

拋樑上
대들보 위쪽에 박치노라

遼學高名日鑽仰 百行為源世有賢
심오한 학문 이름이 높아 나날이 덕을 청송하여 우러르고, 백행은 모범이 되고 대대로 현인이 있으니

窺窺祠屋萬夫望
우뚝한 사당을 만인이 우러러보리라.

拋樑下
대들보 아래쪽에 박치노라.

盈科³⁷不息龍淵淵 儒冠儒服于于來
레인 곳을 만나면 물이 채우고 흘러가듯 차차근 차차근 쉬지 않고 배움을 닦아 깊은 못을 이루고, 유생의 관 쓰고 옷 입은 선비들이 우우 몰려오니

西境聞風村秀雅
서방정토에 앉아 들리오는 말만 들어도 재주가 빼어나고 우아하다.

伏願 上樑之後 華構永肇 文教彰彰

앞드려 바라오니 상량한 이후로는 눈부신 건물 열릴터 공교하고 문교가 극히 번창하소서.

薨楠³⁸ 丸山 山高水長³⁹ 之風 不沫

수많은 잣나무가 꽃피우고 산은 높고 물은 유유히 흐르듯 군자의 덕이 끝나지 않고

續被⁴⁰ 濟濟 忠君孝親之義愈明

신비들은 흥룡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의를 날같이 깨닫게 하소서.

각주

16) 高文典範, 국가 또는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진행될 귀중한 저술

17) 퇴계 이황을 가리킴.

18) 문묘

19) 唐景(唐景)의 폐해를 가리킨 말이다.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강릉 출신의 주복(周福)과 방식(房式)이 각각 남부(南部)와 북부(北部)로 나누어 상대방을 공격하였는데, 이것이 사대부가 등극하여 세운 철도의 일로 전해진다. 《後漢書 卷87 黨錮傳序》 그리고 송(宋) 때 사대(士大夫) 원유(元祐) 때의 유식(蘇軾)의 후경(後集)과 유안(劉安)의 석담(石潭)과 장경(張敬)의 홍정(洪正)이 서로를 치열하게 공격했던 일이다. 《宋史 卷340, 卷427》

20) 선조의 시호

21) 청묘에 앞드리라는 뜻. 간관으로서 적인하는 것을 비유한다. 청묘는 천자의 내정(內庭)에 머무르도록 등고(登高)를 그리 고문로 왕후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한 원제(漢元帝)가 병이 들었을 때 부 소의(傅昭陽)와 그 소생인 정도(定陶)왕은 늘 좌우에서 모시고 황후와 태자는 가끔 찾아뵈어 원제가 태자를 폐위하고 정도왕을 태자로 책봉하려 하였다. 이에 사신(侍臣)이 직접 내내(內內)로 들어가 청묘 위에 앞드려 올렸더니 태자를 폐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하였다. 《漢書 卷82 史丹傳》

22) 선조가 즉위한 다음해

23) 황제나 왕이 직접 파견하여 법을 집행하게 하는 관원을 가리킨다.

24) 출임, 자는 장풍(長風)이며, 직언을 잘 하기로 유명하였다. 한 무제(漢武帝)가 그에게 출임 태수(淮陽太守)를 제수하자, 그는 물면서, “신은 중랑(中郎)이 되어 대궐에 출입하면서 왕제의 과실을 보고하나 그 소를 알 할 수 있는 일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자, 무제가, “그대는 화원을 박하고도 여기는가?” 하였다. 그 후 급엄은 화원으로 가서 선정을 떠다가 7년 만에 죽었다. 《史記 卷120 列傳》

25) 왕자나 왕위(王威)에 한 번 배척을 당해 수형으로 나갔다는 ‘일취술수(一釀守守)’의 준말로, 외방의 관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文選 卷21 五經本 阮瞻平》

26) 사방의 벽을 백토(白土)로 바른 방이다. 장전(張建)에는 선주가 사방을 이영으로 둘러친 의뢰(義禮)에 가처하는데, 장후(張後)에는 그 외곽의 벽을 흙으로 발라 바깥과 추위를 막는다. 그러다가 소상 때가 되면 흙으로 바른 벽 외곽에 다시 백토를 입히고, 대상 때가 되면 백토에 검은 흙을 깔고 벽에 다시 백토로 덧칠을 하여 방을 막긴 무늬다. 《禮記 典大記 註》

감사대 전발

안동김씨대종회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총무공 김용하 장군 묘역 관리 및 후손들의 묘소 참배에 협조해 준 공으로 육군 제2358부대장 중령 석대현 님에게 수여한 감사패를 부대 훈련 중인 관계로 행사에 불참하여 전달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4. 6(일) 육군 제2358부대령을 방문하여 감사패와 축하문을 전달하였다.

이날 부사공과종회장 원호남, 규장, 규세(대종회장)님, 종친 규면님, 이사 태형(파종회 총무)님 등 5명이 동행하여 부대장 석대현 중령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리 문중 소개와 선조님들의 위업을 설명하고 앞으로 더욱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며 군민 협조 차원의 유익한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석 부대장은 안동김씨대종회와 모든 종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대민봉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였다.

要勉魯道之不興 敢云張老之善⁴¹ 頌

노나라의 도가 크게 흥하도록 힘쓰길 바라며, 감히 복을 베풀는 말을 하여 읊었습니다.

祠號曰 忠烈 堂號曰 龜龜講壽

사를 이름하여 충렬이라 하고 당을 이름하여 구암강사 한다.

資憲大夫 禮曹判書兼 知經筵禁府春秋館事 五衛都總府都總官 豐山

洪義浩義⁴² 謹撰

자헌대부 예조판서 지경연의금부 춘추관사 오도총부 도총관 공신공의 의호 양충사 삼공.

27) 음식을 절감하고 풍성하게 장만하여 공경히 부모를 봉양함을 이른다. 《서경(書經)》 주교(酒誥)에 “효도 그 부모를 봉양해서 부모가 기뻐하시기를 스스로 음식을 절감하고 풍성하게 장만하여 술을 올리도록 하라.《用孝養厥父母 厥父母樂 自洗滌 致用酒》”하였다.

28) 율의 오기로 보임.

29) 옛날 뛰어난 기교를 가졌다는 목수의 이름.

30) 상량문

31) 빠진 글자가 있어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이런 뜻인 듯합니다.

32) 12온 약 2.4m. 매우 높은 것의 비유.

33)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별. 또는 문운(文運)을 일으킨 훌륭한 사람.

34) 어떤 사람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행적이나 사상 따위를 마음속으로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뒤를 이르는 말.

35) 스승.

36) 태의 오기로 보임.

37) 齋科而後進, 구령을 가득 채우 제우에 나간다는 뜻으로, 율이 흐름 때는 조금이라도 오목한 데가 있으면 우선 그곳을 가득 채우고 아래로 흘러간다는 말. 곧 사람의 배움의 길도 속성(速成)으로 하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 나기가 된다는 것.

38) 格의 오기로 보임. 시경(詩經) 상송(商頌) 은무(殷武) “그 경신에 오르니, 소나무 잣나무 꽃피고난, 곧 나무 뿌리 울거니와, 비르게 하고 급매네. 기다린 소나무 사가려 많은 기운이 번듯하니, 상당 집이 편안히 앉았도다.《涉彼崇丘 松柏丸丸 是斷是遷 方斯是虔 松栢有 旒櫛有閑 寢或孔安》의 松柏丸丸을 전한 것으로 보임.

39) 군자(君子)의 덕이 높고 급엄을 산의 우목 숲과 큰 냇물의 흐름에 비유한 말

40) 선비가 있는 법이 넓게 터진 도

41) 장로지선은 장로가 잘하는 바, 기복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傳)이나 헌문(獻文)자가 집을 지자, 장로(長老)가 치사(致辭)하기를, “아름답다고 높고 큼이며, 아름답다고 광명하며, 여기에서 노래하고, 여기에서 곡하고, 여기에서 국곡(國歌)이 오미라라.” 하니, 문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에서 노래하고, 여기에서 곡하고, 여기에서 국곡이 오미라 한다면 이는 돌을 보몬하여 구경(九經)으로 선대부(先大夫)를 따르는 것임이다.” 하고 복축을 행한 장사의 묘소를 하였는데, 군자(君子)가 말하기를, “이들이 천비를 잘하고, 기복을 잘하였.” 하였다. 《禮記 禮運》

감사패

안대 제2015-3-3-4호

육군 제2358부대장 중령 석대현

귀하께서는 무절한 사랑감과 헌신적 대민 봉사 정신으로 애하 부대의 영내에 있는 운무공 김용하 장군의 묘역관리는 물론 후손들의 묘소 참배에 적극적으 협조해 주심으로 본회 숭조정신 향상에 공이 지대하므로 그 공로를 치하하여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서기 2015년 3월 19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봉희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2015. 02. 01 ~ 04. 30)

○광성회비 · (鄭)태형(의선), (閔)운선(인천)

(계: 40만 원)

○호진금 · 10만원 : (鄭)형회(대규), (黃)사원(인천)

· 5만원 : (黃)영용(영주), 동진(서울), 용혜(안천)

· 3만원 : (黃)재현(서울)

(계: 38만 원)

○통상회비 · 5만원 : (黃)완식(대천), 종대(영주), 안식(남원), (提)동현(제천), 평응(수원), (副)하일(서울), (大)재수, 재갑(함평), (安)태수(서울)

· 4만원 : (安)인묵(영주)

· 3만원 : (提)규태, 상기(천안), (黃)태관(청주), 수길(부산), 수대(영주), 정희, 수돈, 윤송, 원식 (서울), 용혜(인천), 윤대(태백) (鄭)춘식(서울), (文)윤환(서울), (文)명수(전주), (安)태현(포천), 의희(전천)

· 2만원 : (黃)진일(대전), 영철(마주), 형회(전천), 원식(경주), 재형(강해), 호식, 재운(서울), 재방(부산), 석희(안천), 상현(영주), 한영(전주), (正)재은(서울), 동식(남양주), (提)용원(대구), 태용(김포), 규철(전천) (文)정희(청주), 동철(광주), 사용(서울), (安)태근(보성), (安)태근, 태갑(서울), 태관(대전), 재원(부산), (安)국원(남양주), (黃)재현(제천), (副)태형(철원), (鄭)재근(광주)

· 1만 2천원 : (黃)태호(대구)

· 1만원 : (黃)재원(춘천)

(계: 155만2천원)